

다시 푸는 경서

치문경훈 (27)

保寧 勇禪師 示看經

(보령 용선사 시간경) ②

譬如野火之人 言語不通 飲食不司
비어이적지인 언어불통 음식불통
孰能進其智 通其欲
숙능달기지 통기욕
其或微解胡語 立便斷矣
기혹미해호어 입변순화이
是以 習經 道安 以敬禮而伏之
사이 습착지 도안 이회해이복지
宗匠之難 慕遠 以靜禮而誘之
종외지배 해원 이시례이유지
權無二 復禮 以辯惑而誘之
권무이 복례 이변혹이유지
陸鴻漸 欣然 以靜式而友之
육홍점 교연 이시식이유지

비유하자면 저 오랑캐들이 언어가 통하지 않고 음식이 같지 않은데 누가 능히 그 뜻 지혜에 다다를 수 있으며 그 하고자 함을 통하리오. 혹시 오랑캐 말을 조금이나마 안다면 그 자리에서 길들일 수 있을 것이다. 이리므로 습착체를 도안선사가 해학으로 승복해 했고 (운법사 무학십문 참조)

종외의 무리(중국 남송대 사람)를 해원스님이 시문과 예악으로 이끌었으며 권무이(당나라 때 시인)를 복례라는

명성 이익을 위해 다투면 법문 뜻얼어 닦고 실천하여 끝을 처음과 같이하라

이가 변혹으로 이끌고 (권무이가 불경 가운데 열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니 복례가 심문변혹론을 지어 그에 답을 한 사례를 지칭함) 육홍점(당나라 선비)을 교연이란 스님이 시식이라는 저술로 벗하였다.

此皆不施他術 唯通外學
차개불시타술 유통외학
況乎佛道二教 義理玄微
황호유도이교의리현막
釋者既精本業 何如鑽極
석자기정본업 하방잔극
以廣開闢 勿廢於一方也
이광견문 물체어일방야

이런 예는 다 다른 재주를 부리게 아니라 오로지 의학에 통한 것이다. 하물며 유학과 도교 두 가르침의 뜻이 깊고도 넓으니 스님이 이미 본업(수행)에 오로지(정진) 하였으면 어찌 (이교를) 깊이 연구하는게 방해가 되리오 널리 보고 들음으로써 한 곳에만 걸리지 말지어다.

孤山圓法師 示學徒

(원산원법사 시학도) ①

於戲 大法 下衰 去聖愈遠
여희 대법 하쇠 거성유원
披經影家 誦道尤稀
피치수중 모도우희
鏡聲利 爲己能 示流通 爲兒戲
경성리 위기능 시유통 위아희
遠法法門 實難 敬禮將頌
수사법문 한벽 교망장외

술프도다 큰 법(법법)이 쇠해지는데 성인(부처) 가신지 더욱 멀어지누나. 먹을 옷 입은 이 비록 많으나 도를 피하는 이 더욱 드물도다. 명성과 이익을 다투는 일로 제 능력을 삼고 불법을 유통케 함에는 아이들 장난같이 하니 마침내 법문을 여는 이 매우 드물고 가르침의 그물은 점차 퇴락케 되는구나.

實難後昆 克荷斯道
실외후곤 극하시도
汝曹 虛心聽法 深己依師
여조 허심청법 결기외사
近期於立身揚名 遠勝於華凡成聖
근기어입신양명 원기어혁법성성
發輝佛法 捨子而誰
발휘법법 사자이수

실로 후학에 의뢰할진대 능히 이 도를 때마야 할 것이니 그대들은 마음 비우고 법을 듣고 몸을 깨끗히 해 스승에 의지하여

가깝게는 입신양명을 기하되 멀게는 법승을 혁파해 선지식이 되길 기약하라. 상법의 발취엔 (상법시대에 법을 드러내게 하자면) 그대를 제끼고 누가 있으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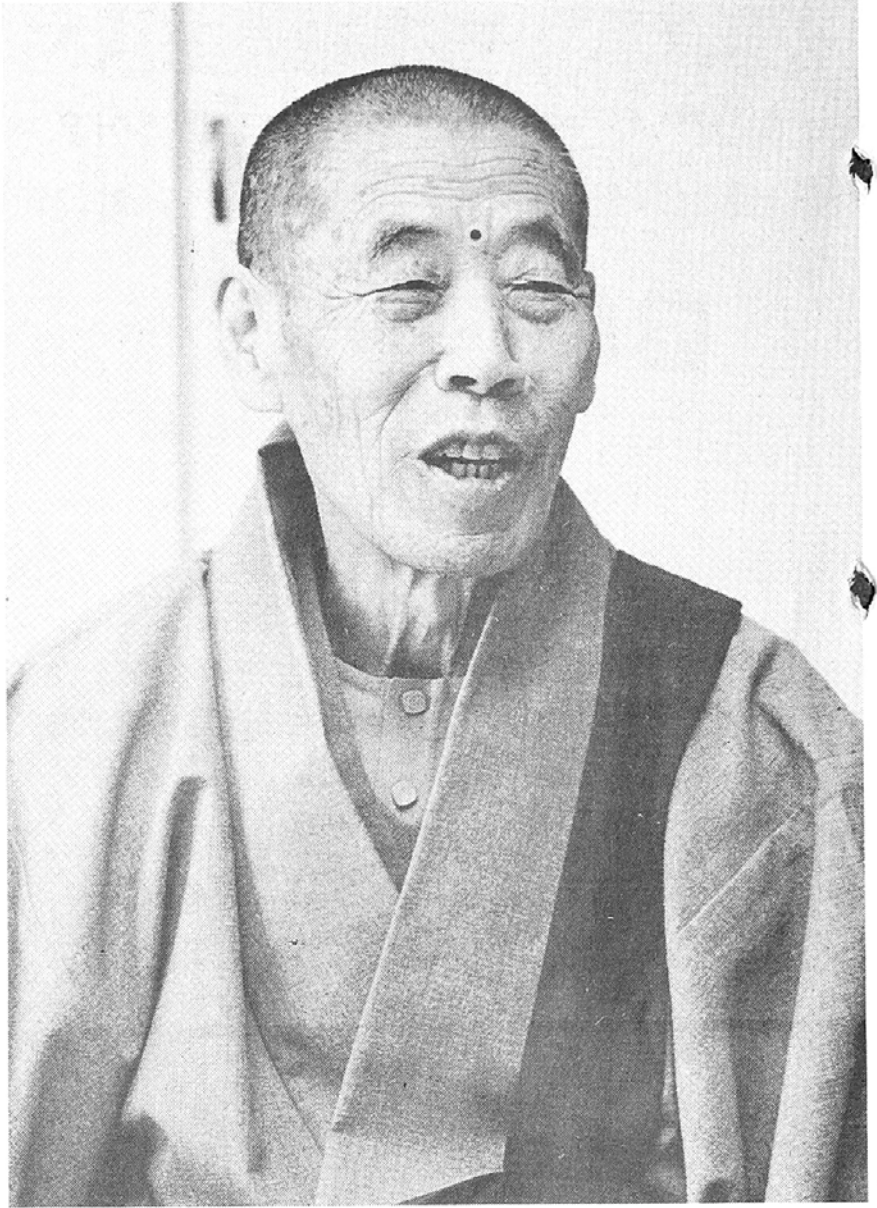
故須修身踐言 慎終始也
고수신신언 신종여시
勤察學問 謹厥行藏
근이학문 근이행장
避惡友 如避虎狼 事良友 如事父母
피악우 여피호랑 사양우 여사부모
奉師禮禮 爲法忘軀
봉사진례 위법망구
有善 無自矜 起過 務速改
유선 무자극 기과 무속개

고로 모름지기 몸을 닦고 말대로 실천하며 끝을 삼가할길 처음같이 하라 학문을 부지런히 배우고 나아가고 (행) 물러 섬(장)에 삼가 할 것이니 나쁜 벗 피하기를 호랑이·이리 피하듯하고 어진 벗 섬기기를 부모 섬기듯 하며 스승 받들에 예를 극진히 하고 법을 위해서는 몸을 잊으며 좋은 일에 스스로 자랑 말고 허물이 드러나면 힘써서 바로 고쳐야 한다.

“신심크면 의심도 크니”

지상법석

범룡스님 훈경 봉암사 조실



약력
· 1914년 평북 명산군 생
· 1936년 금강산 유점사에서 출가
· 1938년 만허스님을 은사로 득도
· 1977년부터 팔공산 비로암에 주석
· 1994년 11월25일 봉암사 조실 취임

요즘에는 경전을 한글로 번역해 놓아 많은 이들이 부처님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어 좋더군요. 그런 반면 사람들이 법을 가법게 보는 생각도 많아진 것 같아요. 경전이 대부분 번역되니 누구나 보게 되고 방송 카세트 책 신문 잡지 등이 많이 나와 법문이 너무 흔해요.

무엇이든지 흔하면 천재지고 가난한 생각도 없어지고 다 들어서 배가 불러버려요. 참선 안해도 다 도통한 것 같고요. 종지(宗旨)도 깊은데 들어가려면 자기 고민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없고 머리로 헤아려 보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부하지 않으면 안되는 필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공부하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으니 수행자들이 제자리에서 서 있지 못한 것 같군요.

요즘은 물질이 풍부해서 없으면 불편을 느껴요. 하지만 그러고는 공부가 된다고 보질 않아요. 너무 배가 부르니 공부할 마음이 나겠습니까. 한 쪽이 비어야 공부가 되는데...

지금와서 부처님이 왜 갈식했나 생각해 보니 이해가 가요. 결식해야 공부가 되겠습다. 하루에 한번 먹고 앉았으니 더 먹을 생각없고 다음에 죽이 생각런지 밤이 생길런지 모르고 그저 침잠만 하고 있으니 공부가 되지요.

“宗도도 깊은데 들어가려면 자기 고민에 철저히 해야 하는데 머리로만 헤아려보고 맙니다”

그런데 요즘은 대중공양이 자주 들어오는데 며칠날 공양 들어올 것이 다 알려지고 옆에서 칼 도마 소리에 음식 냄새 맡고 있으니 공부가 되겠소. 선방하고 식당하고는 멀어야 해요. 결식은 못할망정 아침먹고 점심에 무엇이 들어오는지 몰라야 해요. 글썽 ‘걱는 참선’ 하고 있으니 공부가 될 턱이 없지요. 그러서 나는 참선 이야기하기도 싫어요. 더군다나 요즘 사람은 나보다 법문도 더 많이 듣고 책도 더 많이 보아 다른데 가선 다 법문하고 있는데 내가 더 할 얘기가 따로 있겠습니까.

옛날에는 그저 결단하나 매고 어느 선지식이 선지(禪地)에 밟다, 화염경에 밟다 하면 찾아가서 공부하는 분위기였는데 요즘은 많이 쇠퇴했습니다. 보기는 많이 보고 듣기도 많이 듣지만 다 자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불법이 일미(一味)인 줄 모르고 초기불교를 소승으로 부정하는 이도 있고, 초기불교를 지나치게 주장하는 사람은 대승비불설(大乘非佛說)이라고 부정하기도 한답니다.

여여(如如)한 부처님 마음자리가 무엇인지를 알아 내려는 의지가 태산같지 않고서야 ‘이거다 저거다’ 분별하는 망상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글썽 세상이 자주 변하니 옛날식으로는 할 수 없겠지요. 하지만 중요한 건 소승이건 대승이건 참선이든 모두가 부처님 말씀인데 쉬지 않고 계속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열심히 안하는 거예요. 뭐든지 신심을 가지니 참하는 사람이 대승비불설(大乘非佛說)이라고 부정하기도 한답니다.

는 할 수 있어요. 괜히 공부하기 싫으니까 시대 탓만 하지요. 지금은 어느 때 보다 공부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어떤 이들은 조건은 좋은데 유혹이 많다고 하지만 유혹은 자기가 극복해야지. 다 자기가 악해서 그런거예요. 옛날 중국 당나라 때 회서스님은 파초 만조를 싣고 파초 일을 따다가 거기에 글씨를 써서 초서로서는 중국 최고가 되었을 정도로요. 왕희지가 이름이 높다 하지만 초서로서는 그를 못따라 갔지요. 파초 일에

글씨를 써 천하명필이 되었는데 지금은 종이가 얼마나 흔합니까. 자기가 성의만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언젠가 보광사 조실 정일스님이 망일사에서 천일기도 했던 얘기를 하시던데 참 대단했더군요. 천일기도 중에 병이 나서 먹지도 못하고 기운도 없는데, 대중은 내뽀라고 하는 등의 수모를 겪었다고 해요. 그럼에도 굳센 인력으로 다 참고 지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참는 것을 말한다면 옛 스님들을

월간 대중불교 9월호

Advertisement for 'Daesung Buddhism' magazine, 9th issue. Features articles on Buddhist law, social issues, and Buddhist education. Includes a list of authors and a subscription form.

Advertisement for 'Daesung Buddhism' magazine, 9th issue. Features articles on Buddhist law, social issues, and Buddhist education. Includes a list of authors and a subscription form.